

명장도... 베테랑도... 힘 못쓴 한화 감독 '잔혹사'

명장도, 레전드도 한화 이글스에선 초라한 이별을 피하지 못했다. 한화는 8일 최원호 퓨처스(2군) 감독을 1군 감독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용덕 감독이 자진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한용덕 감독은 지난 7일 NC 다이노스전에서 패한 뒤 정민철 단장과 면담에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레전드의 쓸쓸한 퇴장이다.

한용덕 감독은 1988년 한화의 전신인 빙그레 이글스에서 연습생 투수로 입단한 뒤 2004년 은퇴할 때까지 줄곧 '이글스맨'으로 활약했다. 개인 통산 120승을 거둬 '연습생 신화'를 쓰고, 지금까지도 한화를 대표하는 투수로 손꼽힌다.

은퇴 후에도 한화와 인연이 계속됐다. 2006년 투수코치를 시작으로 2012년 감독대행, 2014년 단장 특별보좌역을 지냈다.

2018년부터는 사령탑으로 팀을 이끌었다. 하위권을 전전하던 한화는 한용덕 감독의 지휘 아래 2018년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의 가을야구였다.

그러나 '이글스맨'으로 한용덕 감독의 영광은 거기까지였다. 2019년 팀은 9위로 다시 추락했고, 올해도 최하위로 떨어졌다. 더욱이 5월23일부터 7일까지 14연패에 빠지면서 팀의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까지 다시 썼다.

결국 한 감독은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유니폼을 벗었다.

레전드뿐 아니다. 이름을 날렸던 베테랑 사령탑들도 한화에선 상처만 안고 떠났다. 암흑기에 빠진 한화는 2013시즌부터 김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한국시리즈 최다 우승(10회)에 빛나는 김용 감독이 이런 한화를 바꿔놓을 것이라 기대가 컸다.



한용덕, 김응용, 김성근 감독(사진 왼쪽부터)



한용덕 감독, 성적 부진으로 자진사퇴 앞서 김응용·김성근 감독도 '쓴맛'

그러나 김 감독은 출발부터 꼬였다. 2013시즌 개막 13연패에 빠지며 충격의 출발을 했다. 결국 반전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2013시즌을 최하위로 마감했고, 2014시즌에도 순위를 끌어 올리지 못했다.

김 감독은 2년의 임기를 채웠지만, '명장'의 명성은 이미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 김 감독은 2015년 팀을 6위로 끌어올렸지만, '명장'의 명성은 이미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

그러나 김성근 감독도 한화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했다. 2016년에는 7위로 하락했고, 후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구단과 갈등까지 겹치며 2017년 5월 팀을 떠났다.

이후 이상근 감독대행으로 2017시즌을 마쳤던 한화는 레전드와 손을 잡으며 새로운 한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전은 없었다. 매년 반복됐던 젊은 선수층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레전드 한용덕 감독도 팀을 떠났다.

이쯤 되면 '감독 잔혹사'라는 말이 무색하지가 않다. 투타가 모두 부진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가운데 이제 배턴은 최원호 감독대행에게 넘어갔다.

KBL, '농구영신' 상표권 등록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이 2016년부터 매년 12월 31일 개최하고 있는 '농구영신(농구와 송구 영신의 합성어) 경기'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

KBL은 8일 "지난해 12월 특허청에 '농구영신' 상표 출원 신청을 한지 약 5개월 만에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며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소유하게 됐다. '농구영신' 이벤트를 자산화했다"고 전했다.

두 해에 걸쳐 시즌을 치르는 프로농구의 특성을 살린 '농구영신' 매치는 2016~2017시즌 고양체육관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후 잠실학생체육관, 창원체육관,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는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울스타전과 더불어 KBL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잡았다.

스포츠의 특정 이벤트 브랜드가 상표권을 획득한 경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연맹은 "이번 상표권 등록을 계기로 팬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2020~2021시즌을 맞아 계획"이라고 했다.

2020~2021시즌 '농구영신' 매치는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안양 KGC인삼공사와 원주 DB의 대결이다. /뉴시스



NC 구창모, 5월 MVP 선정

NC 다이노스 구창모(23)가 5월 최고의 투수로 뽑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후원하는 2020 신한은행 KBO리그 5월 MVP에 NC 구창모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0 KBO리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에서 진행된 팬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총점으로 결정된다.

투표 결과 구창모는 기자단 투표(30표 중 27표)와 팬 투표(22만9971표 중 17만6113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총점 83.29점으로 KBO가 수여하는 월간 MVP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여자프로농구 경기요원 공개 모집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8일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경기 요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모집 분야는 경기 운영 파트(샷 클러, 부저, 계시, 스코어시트, 입력, 스피커, 득점 및 비득점)로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다.

국제농구연맹(FIBA) 테이블 오피셜 자격증 소지자, 대한민농구협회(KBA) 혹은 FIBA 심판 자격증 소지자, 농구 분야 경기 운영 요원 경력자, WKBL 선수 출신 또는 선수 경력자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이메일로 가능하며, 희망지는 이력서 일부와 지원 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증명서 1부를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WKBL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英 스카이스포츠도 손흥민 이적설 보도

'레알 마드리드 이적' 스페인 매체 최초 보도 인용... 이적설 코너서 언급

영국 유력 매체인 스카이스포츠도 손흥민(28·토트넘)의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을 소개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7일(현지시간)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들의 이적설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손흥민의 사진을 메인에 올리며 최고의 이적 이슈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됐다"면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그를 좋아한다"고 보도한 스페인 매체 돈발론을 인용했다.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행 가능성을 처음 제

기한 돈발론은 1억5000만 유로(약 2040억원)라는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언급한 바 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토트넘을 결승까지 올려놓으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독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등과 연결된 바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적설은 EPL 재개가 다가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다루는 스포스웬은 "레

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원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고, 일본 매체 게이시카는 "아시아 마케팅 측면에서 레알 마드리드 손흥민 영입은 이득"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EPL은 18일 아스톤빌라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잔여 일정을 시작한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재개 첫 경기를 치른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